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4월

목차

특집 기사	2
죽음에서 살아나심.....	2
성경 공부	20
부활의 소망.....	20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24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28
가족을 가르치라	31
기독교인의 삶과 교리	35
제자도의 표현.....	35

성경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나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4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곧 죽은 자들을 위한 미래의 삶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감을 받은 모든 저자들은 구세주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인류를 부르실 “아침”이 되면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은 더 이상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처럼 무덤에 누워 있으며, 사망이 그들을 삼키리니, 아침에 의인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시편 49:14). “아침”은 의인들에게 통치권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무덤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으며, 신약의 저자들은 미래의 삶과 축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16-18

우리 주님의 부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9,20).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을 예언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생명 차원, 즉 신성(神性)으로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시니라.” 에베소서 1:21-23; 골로새서 1:18

비록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행위에 담긴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성경의 수많은 확신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는 동역자로서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데 있어 우리의 신실함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참으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므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으며, 그것들을 흠더미와 같이 여깁니다.” (빌립보서 3:8).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예수]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어떻게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함이라.” 빌립보서 3:10,11

우리가 매일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로마서 12:1).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백성들을 강제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보이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정화의 과정이 수반할 수 있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사고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6,7

바울의 논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28절에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활에 관한 완전한 논의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교리의 일부임을 증명하며,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는 무가치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12-19). 둘째로, 교리를

증명한 후, 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보여 주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그는 이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과 그 타당성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21).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완전한 부활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의 왕국 통치 아래에서 제공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왕국의 의로운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합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같은 마음의 성품을 기르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인간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 (고린도전서 15:22). 죽음에서 깨어난 후 성품과 신성한

법에 대한 순종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이 약속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뛰어나신 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과 함께 희생으로 생명을 바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첫 번째 부활”에서 교회를 위해 그 능력을 더욱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건강, 안락, 명성, 혹은 세상의 기쁨과 같은 현재의 모든 혜택은 영적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토록 높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을 생각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7). 우리가 신실하다면, 첫 부활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21). 그러므로 신실한 교회의 장차 상속받을 유산은 영광, 곧 “더 뛰어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10

가벼운 고난

이 주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큰 무게를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17,18). 여기서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속죄 제물로 세우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이 때에 그 의를 나타내시되, 곧 그분께서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25,26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 따라야 할 순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5:23). 첫 열매의 반열, 곧 그리스도의 상징적 몸의 신실한 구성원들은 순서와 지위 면에서 가장 먼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12,27). 현세에서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신실하다면, 그들은 “첫 열매” 반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음의 모양에 함께 심겨졌으면, 그의 부활의 모양에도 함께 하리라.” 로마서 6:3-5

첫 열매의 반열에 들라는 부르심은 수 세기 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첫 번째”이시며, 첫 열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십니다. 그 이후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믿음으로 구속주의 희생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로마서 8:17; 갈라디아서 3:29

하나님의 위로

첫 열매의 반열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귀한 약속들에 의해 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아노라.” (로마서 6:8,9).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 능력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 능력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고, 지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경험으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으며, 이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12-16). 오히려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마태복음 24:13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이자 유산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 그들이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13, 6). 이 약속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4-16; 요한일서 3:2

첫 열매인 그리스도 계급의 머리와 몸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질 미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과 불의인 모두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15).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두기까지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24-26

다시 일어남 - 회복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등장합니다. 이는 “다시 일어남”, “회복”, “일으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anastasis)’를 번역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나 그 후 다시 죽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깨어남을 가리킬 때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경우로, 이 경우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나 그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 ‘부활(resurrection)’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1을 참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부활[아나스타시스]의 기회를 보장해 주었습니다(디모데전서 2:5, 6). 부활을 단지 다시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완전함을 상실하고 도덕적 타락, 질병, 슬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향 나선형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따라서 부활에 대한 약속은 잃어버린 후 구속된 것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9:10

회복이나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anastasis)'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얼마나 멀리 타락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속주께서 인류를 위해 확보해 주신 완전한 회복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생명 자체가 상실되었지만, 그와 함께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이 수반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소멸, 즉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에 따른 부활을 통해, 메시아 왕국 시대에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 계급의 의로운 통치 아래, 인류 가족 중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이들은 완전함의 숭고한 경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완전함으로의 귀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인류 세계에 있어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4, 6). 그러나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정신적·도덕적 완전함에 강제로 도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함에 이르는 부활과 관련된 일들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이를 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할 일을 힘써 하라. 네가 가는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느니라” “죽음에는 너를 기억할 자가 없나니, 무덤에서 누가 네게 감사하리요?” 전도서 9:10; 시편 6:5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모든 이가 죽은 자의 부활 때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확신입니까! 깨어날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며, 각기 다른 조건 하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죽기까지 신실한 온전히 전념한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천상의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신성한 본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베드로후서 1:4

나머지 인류는 심판, 즉 시험 기간으로 깨어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일어나 회복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년 심판의 날에 주어진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이시며 몸인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가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여 장미처럼 꽃을 피우리라. ...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라. ... 거기에 큰 길이 있고,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리라. ... 여호와와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 이르리니, 그들의 머리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라.” 이사야 35:1, 5, 8, 10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은 지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함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다시금 인류를 위한 기쁨 넘치는 보금자리이자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인류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에 완전함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탄의 권세와 그 눈멀게 하는 영향력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1-3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궁극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모든 무지와 편견, 미신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에 대한 참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사야 11:9). 사람들의 육체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 또한 죄의 속박에서 마찬가지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목표이자 위대한 사역이다. 왕국이 세워지면 평화와 기쁨, 생명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는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의 종결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11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된 것이더라.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울부짖음도 없으며,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1-5

인류는 다시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훈을 온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30,31

사랑은 인류가 배워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10). 완전한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성품의 표징은 바로 완전한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온 인류의 형제애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다를 위로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3-26). 우리는 이 진심 어린 말씀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부활의 소망

핵심 구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이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12-28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 뒤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이 논리는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은 강력하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신학적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자요, 죽었던 자요,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 있노라.” (요한계시록 1:18).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 또한 확실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이전 가르침과 일관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중 하나를 전했습니다. 부활에 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를 확신시켜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듣자,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듣겠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17:31,32).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넘겨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로마서 4:24,25).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다면, 어찌하여 너희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12).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교리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무지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 부인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고학력의 사두개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종파는 부활이 없다는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맞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사실을 유리하게 활용했다. “바울이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임을 알아차리고 공의회에서 소리쳐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내가 심판을 받고 있도다!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이 갈라졌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3:6-8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 중 많은 이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임—사도행전 5:17 참조]가 믿음에 순종하였다.” (사도행전 6:7).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에는 바울의 강력한 논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더 분명한 통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핵심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경탄하며
바라보더라.”

마가복음 12:17

선정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13-17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경탄합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천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위대한 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로를 싫어하던 바리새파와 헤로데파가 힘을 합쳐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와 헤로데파 중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누구의 말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겉모습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가 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13,14). 그들의 말은 위선적이었으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동기를 간파하신 예수께서는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왔다.” (마태복음 22:18,19).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온 사실은 그들의 기만을 더욱 드러내는 증거였다.

유대인의 세겔은 성전 봉사를 위한 헌금용 동전이였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였다. 로마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납부되었다. 예수님의 비방자들은 지갑에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겔 대신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자신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선은 거짓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동전을 손에 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그분은 “이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가이사(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마가복음 12:16, 17). 마태복음은 그들이 “그를 떠나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덧붙입니다(마태복음 22:22). 그들은 스스로 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는 후세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 실천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대립을 낳는 질문들에 직면합니다. 상반된 철학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끌려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닻이 되어 줍니다. 먼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주라.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27-29)

황금률은 우리 일상의 길 위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라.” (누가복음 6:31). 우리 모두 법에 따라 ‘가이사’에게 마땅히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핵심 구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15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13-16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평소 성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긴 하루의 가르침,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혹은 이혼에 대한 민감한 논의가 그들의 반응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성숙한 주제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들이 맡게 될 역할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어린아이들로 인해 주의를 분산시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에 불쾌해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그 위계에 관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불쾌해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다.” (마가복음 10:14-16).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구현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만큼 작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25-32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순수했습니다. 냉소, 편견, 인종 차별, 민족주의, 탐욕, 증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다른 결점들이 전혀 없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할 마음의 순결함과 사랑, 그리고 신뢰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평화로운 왕국의 환상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 곁에서 놀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내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멸하는 자가 없으리니, 이는 땅이 바다를 물이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임이라.” (이사야 11:6-9).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가르치라

핵심 구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라.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이를 되새기라.”

신명기 6:6,7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6:3-9

우리의 핵심 구절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례 없는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우리를 그 영향력 아래 사로잡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넘기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모든 행위는 영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의 11%가 문제성 소셜 미디어 행동 징후를 보이며, 이는 2018년 7%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학생은 13%, 남학생은 9%입니다.

• 문제성 사용은 정신적·사회적 웰빙 저하, 약물 사용 증가, 수면 장애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인은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높입니다.

임상 전문가들은 참여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의 자기 조절 시스템을 압도하여, 강박적 사용, 비교 불안,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휴대폰에 파묻혀 있는 성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쇼핑 카트나 식당 유아용 의자에 앉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오락을 즐깁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웰빙과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위로의 연고를 옹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화와 고요함,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하리로다.” (시편 91:1,2). 우리는 어떻게 그 피난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교훈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핵심 구절들은 경건한 가정 분위기를 지혜롭게 권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삶에 지극히 건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정의 가장이 먼저 시작해야 하며,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규례는 바르므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여호와와 판단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금보다 더 소망할 만하다. ...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을 지키는 데에는 큰 상이 있나이다.” 시편 19:7-11

이 시편 말씀의 힘을 깨닫고서,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가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한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스승이 만 명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15).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골로새서 3:21). 우리가 모든 기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도록 이끄는 은혜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표현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이신 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3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초대와 받아들임으로써, 그분 안에서 나타난 신성한 대의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24).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나 학생”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 “보라, 참으로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요한복음 1: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뿐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 중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18,19

본문의 서두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분명히 보여주며 매우 신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니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며 이를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리니, 네가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 주라. 그러면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17,18). 야고보가 사용한 비유는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야고보서 2:15,16). 만약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할 행함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중 많은 것을 언급합니다. 이 기록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 또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식을 낳을 힘을 얻어,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았으며,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으며, ...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자기 유해에 대하여 명령을 내렸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4-25

이것들은 바울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낸 믿음의 표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인다. “또 무엇을 말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얻었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맹위를 꺾고, 칼날을 피하였으며, 연약함에서 강해졌고, 싸움에서 용맹해졌으며, 이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32-35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상을 주신 경우들을 통해 믿음의 행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심지어 쇠사슬과 감옥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방황하며,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땅의 굴과 동굴에서 방황했습니다.” 히브리서 11:36-38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시련과 박해를 겪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대의를 옹호하고, 그들을 둘러싼 악의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다니엘 3:1-12).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느부갓네살의 경고를 받은 후, 이 신실한 용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왕이시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그 금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임을 왕이 아십시오.” 다니엘 3:17,18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히브리 청년은 그들의 하나님이 불타는 용광로에서의 잔혹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 유혹에 대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가 최선이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더 나은 부활”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35

사랑은 수고합니다

사랑이 수고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니라.” (히브리서 6:10). 여기서 언급된 “사랑의 수고”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권면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찬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3:16

사랑의 수고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이끌릴 수는 있으나 강요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이기심 없음에 기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장 훌륭한 본을 봅니다. 그분의 모든 창조 행위는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자 구세주가 되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가페(agape)’는 ‘자선’으로 번역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연구자들은 ‘자선’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순수한 자선은 성경이 말하는 신성한 사랑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선은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대가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분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사랑은 베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 속에서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마음을 채우면 사랑의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타인, 특히 형제들을 위해 매일 희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찬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물었듯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17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할 다른 사랑의 수고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 시기하지 아니하며, ...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4-8).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다양한 덕목들에 완벽하게 부합할 만큼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하기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 다시 소망하리요?” (로마서 8:24).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즉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요한계시록 20:6). 우리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견뎌내야 할 시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노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음을 앎이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라.” (로마서 5:3-5)

히브리서에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인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니,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36-38). 사도 야고보의 글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오심[그리스어: 임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오심[임재]이 가까웠느니라.” 야고보서 5:7,8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종종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 수립에 관해 더욱 그러합니다. 초기 교회의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생을 마치기 전에, 그 일이 자신들의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수세기가 지나갈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너무나 소중한데, 그들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며 그 성취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를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선포함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칭찬했을 때,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활동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도의 말씀 맥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으니, 너희가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지냈는지 모르니라. 너희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로써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8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정과 신실함이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선교적 열정을 본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차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널리 퍼진 모든 곳에서도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온 땅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9; 사도행전 1:8).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 사역이 우리 일상에서 결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랐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 자신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누가복음 4:43

오늘날의 동일한 시험

오늘날 우리는 초기 교회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국에 대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시대의 형제들처럼, 우리 또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며, 고난을 겪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겪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이 인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인내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겉보기에 지연이 있다고 해서, 진리와 그 섬김에 대한 초기의 열정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박국 2:3; 히브리서 10:37).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인내심을
시험하시며, 기다림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일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같은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히브리서 6:10,11).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잠시 동안이나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시험은 좁은 길을 끝까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니, 이는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이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에 들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서,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질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8:11-15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하는 것”은 이 위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며,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해야 합니다. 로마서 2:7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한 종에 관해,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일의 청지기로 삼으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21).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이신 분의

눈앞에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